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돈이 이혼 길 막는다.

lawhwshin on June 22, 2011

요즈음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질문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이혼을 더 많이 하나요?” 이다. 불경기가 모든 사람의 목을 조이고 인간관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경기라서 하고 싶은 이혼도, 이미 벌려 놓은 이혼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혼에서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수입에 따라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비의 액수가 달라진다. 취업을 혹은 실업률이 배우자 생활비 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 가격, 비즈니스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부부가 최종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재산 분배의 숫자를 결정한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은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전제하고 이혼할 때 공평하게 50/50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혼 시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 현금화 하여 나눌 수도 있으나, 보통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갖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지불로 대처한다.

예컨대, 남편은 비즈니스를, 아내는 집을 갖고, 차액에 대하여 더 많이 가진 자가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여 50/50의 재산 분배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 분배에 따른 현금 지급을 법적 용어로 ‘Equalization Payment’라 한다.

요즈음 같이 회복세를 알 수 없는 불경기 시대에는 재산도 함부로 갖겠다고 나서기가 어렵다. 일단 시장 매매가 동결돼 현 시가는 매입 시 가격보다 현저히 떨어졌고 언제 순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을 지 예상하기 어렵다. 또, 저축 같은 현금 보유 자산이 없는 경우, 높은 은행 용자 등 재산 유지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 깔끔히 재산을 분배하고 빨리 빨리 이혼 하고 싶은데 돈이 이혼 길을 막는다.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이 없는 재산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들어간 돈이 있는데 버릴 수도 없다. 더군다나 재산도 주고 그 위에 Equalization Payment로 얹어줄 현금은 쥐어짜도 나올 곳이 없다고들 한다. 받는 입장도 말이 많다. 당장 돈이 나올 곳이 없는데 돈 잡아먹는 재산을 넘죽 떠안을 수는 없다고 한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이혼, 하겠다고 작정하고 공개 선언까지 했는데 돈이 조이니까 마무리하기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껍데기인 결혼 유지 기간, 17년. 5년 전에 H에게 여자가 생겼다. 그것도 남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여자. 얼굴도 부인에 비해 형편없다. 결국 바람이 아니고 사랑인지. 경제력이 전혀

없는 W. 남편은 필요 없는데 이혼만큼은 자신이 없다. W도 질세라 젊은 남자 친구 하나 만들었다. 젊음에 대한 대가로 만날 때 마다 쌈짓돈이 퐁퐁 나간다.

안팎이 자타가 인정하는 독립(?)된 생활을 한 지 수 년. 흥흥한 소문(?) 때문에 애꿎은 늙은 부모님들만 마음 껏이신다. 급기야 H가 총대를 메고 이혼 신청을 했다. W도 질세라 싸움닭으로 소문난 변호사를 선임했다.

현금 수입이 절반이 넘는 남편의 비즈니스. W는 비즈니스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비즈니스의 재산 가치를 책정하기 위해 양 쪽 다 법정 전문 회계사(Forensic Accountant)를 고용했다. 팔리지도 않는 비즈니스의 가격을 정해야 재산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비즈니스, 부인은 집을 갖기로 방향은 잡았는데 비즈니스 가격에 따라 남편이 부인에게 얼마를 더 얹어 주어야 하나, 즉 Equalization Payment의 액수가 결정된다.

이러기를 1년 반,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은행 융자 금액이 집값보다 높다. 비즈니스도 지질 거러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던 어느 날, 양 쪽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저희 이혼 중단하기로 합의 봤어요. 솔직히 지금 이혼하면 너무 남는 게 없어서 제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도 이혼해서 한 밀천 떨어져야 저도 먹고 살지요...'

이 현상을 '아이고 잘 생각했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해야 하나. 1년 반이 넘도록 손톱 발톱 다 세워 이젠 끝장이라 있는 속, 없는 속 다 보여줬는데..... 과연 돌아 갈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가정이 깨지는 이혼도 아프지만 이혼을 취하하는 그 이유가 웬지 이 저녁 나를 더 씩씩하게 만든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신혜원이 소유함을 명시합니다.

**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인물 및 상황을 설정,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